

삼호 F&G



“행복 만들기”의 실천 안전에서부터

삼호 F & G

어렸을 적 친구 도시락 반찬 중에 맛살로 만든 전이 있었더라. 시골에서 자란 나는 먹어본 경험이 없던 그 새하얗고 빨간 마치 게살같이 보드라운 맛에 한동안 맛살을 사달라고 어머니를 보채었다. 이제 흔한 음식이 되어버렸지만 난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30년 동안 꾸준히 맛살과 어묵을 만들어온 삼호 F&G(구 ‘삼호물산’)를 찾았다.

■ “행복 만들기”(정직한 경영, 깨끗한 경영, 가치의 경영)

삼호 F&G는 1976년 수산물 보국화를 기치로 삼호물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무역업과 농수산물 가공업, 원양어업, 냉장·냉동업을 주 사업영역으로 시작하였다. 2004년 3월에 삼호 F&G로 사명을 변

경하면서 종합식품회사로 새롭게 도약의 나래를 펴고 있다.

삼호 F&G는 “행복 만들기”의 경영이념 아래 “투명성, 다양성, 시장성, 문화성”을 창조하기 위해 “정직한 경영”, “깨끗한 경영”, “가치의 경영”을 실천하고 F&G(Food&Good)를 바탕으로 F&G(First&Global)를 추구, 깨끗하고 고품질의 식품을 만들기 위해 600여명의 사원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자율안전관리의 실천 “제안제도”의 활성화

삼호 F&G의 생산공정은 크게 어묵, 맛살 그리고 푸딩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생산과정 중에 사용되고 있는 기계들은 대부분 회전운동을 하는 회전체가 많아 말림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어묵과 맛살을 튀기거나 삶는 과정에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사용하고 있어 화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식품제조상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바닥에 물이 고여 장화를 신고 있는 작업자가 전도할 위험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설비가 동력원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감전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TPM활동의 일환으로 각 공정별로 분임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분임조 활동에서는 각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위험예지활동을 비롯하여 설비의 보전 및 개선, 작업방법의 개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등에 관해 토의를 한 뒤, 제안제도에 짜여진 조직을 통해 상부로 보고되어진다. 최종적으로 TPM 추진본부에서는 보고되어진 각 제안들에 대한 타당성 및 개선 등급을 평가하여 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아간다.

이러한 분임조 활동의 결과로는 회전체에 의한 협착사고의 방지를 위해 회전체에 방호울, 덮개 및 건널다리를 설치하였고, 고온체의 표면은 커버를 씌워 작업자의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모든 전기기기에는 접지를 철저히 시행하였으며 사용자를 별도로 설정하여 책임 사용자 외에는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고, 미지의 전기위험성에 대해서는 작업자의 노출을 최소화시켰다.



월 1회 행해지는 제안들은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의 개선 성과로 나타났으며, 분임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에 대한 피드백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의 지급 등으로 전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 식품회사로서의 생명 “위생을 지켜라” HACCP 인증

식품 회사로서 위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모든 작업장 출입구에는 알코올 분무기가 설치된 에어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다. 작업장 출입시 모든 작업자는 이곳을 통과하여 세균으로부터의 오염을 차단한다. 작업 종료시에는 5S운동에 따라 청소, 정리, 정돈은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전 작업장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푸딩라인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11월에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금년 안에 어묵, 맛살 라인을 리모델링하여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계획 중에 있다. 이러한 HACCP 인증을 통해 작업동선의 간소화, 이동거리 축소, 청결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더욱더 발전된 무재해 사업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 우리는 한 가족 “삼호 F&G”

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 했다. 사고는 한 순간이지만 그로인한 몸과 마음의 상처는 오래 남는다. 안전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주변의 작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의식은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발의 된다는 삼호 F&G의 김태형 공장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무재해 사업장으로서 행복이 가득한 공장,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삼호 F&G가 되길 기원한다. 

〈임재근 기자〉